여행의 자유 누리는 캠핑카

안전하게 타려면 보험은 필수

이동과 숙박은 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캠핑카는 이 모두를 해결해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당시 국내 오토캠핑 차량은 1만 2,371대였다. 전용으로 제작된 캠핑카와 카라반, 캠핑용으로 고친 차량을 합한 수치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맘껏 지내고 싶은 욕심을 생각하면 한 번쯤 구매도 고려하게 되는 캠핑카. 과연 어떤 게 나에게 어울릴까?

글_이준호〈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자〉

캠핑카와 카라반, 어떻게 다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캠핑카와 카라반(caravan, 캠핑용 트레일러)은 같은 물건처럼 보이지만 다르다. 오토캠핑의 대표적 수단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캠핑카는 자동차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만, 카라반은 자동차 뒤에 달아 끌고 다녀야 한다. 카라반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말로 '사막의 여행자'를 뜻한다.

동력을 갖춘 캠핑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조된 것이라면 운행에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다.

캠핑카와 달리 카라반은 구매했다고 해서 바로 자동차에 매달고 떠날 수는 없다.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당연히 자동차 면허도 필요하고 등록 여부도 확인한다. 카라반은

차량의 총 중량이 750kg이상(3t 이하)일 때 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이 면허는 2016년 레저문화 확산에 따라 카라반 등의 소형 트레일러 이용자를 위해 신설됐다.

면허 시험도 치른다. 피견인차를 매단 상태에서 굴절, 곡선, 방향전환 코스를 통과해야 한다. 1 · 2종 보통면허 보유자는 취득 1년 후에 적성검사를 거쳐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다. 대형면허나 특수면허 소지자는 기능시험만 치르면 된다.

트럭 개조는 아직 '불법'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캠핑카(캠핑용 자동차)와 카라반(캠핑용 트레일러)은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간주한다. 따라서 화물차나 특수차에 주거공간(캠퍼)을 얹은 형태의 개조는 불법이다. '물품적재 장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해석 이후 경찰의 대대적 단속까지 있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는 도로 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이 필요 없도록 특례를 뒀다. 이에 따라 운행이 목적이 아닌 숙박업의 목적을 둔 경우라면 불법이 아닌 셈이 된다.

만약 카라반을 이용해 숙박업을 할 요량이라면 '야영장업 관광사업자'로 사전등록하면 된다. 국산 카라반이 대부분 운행보다 정박이나 숙박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지는 이유도 이런 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박용 카라반을 차에 달아서 도로 위에 올라서면 불법행위다. 이동할 때는 화물차에 싣고 움직여야 한다.

보험 가입 시 '견인 고지' 잊지 말아야

캠핑카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보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보험사 설명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자동차등록이 된 캠핑카는 업무용으로 간주된다. 보험도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면 대인 · 대물 보상, 자기차량 손해 등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모든 보호를 받는다.

카라반은 조금 복잡하다. 우선 카라반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 자동차의 일부로 규정된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은 필요 없지만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를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꼭 챙겨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카라반 보험은 견인차와 카라반 명의가 같아야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차는 아내, 카라반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차나 카라반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된다. 이외에도 보험사에게 '내 차로 트레일러를 견인한다'고 알리는 일이다. 이때 '레저장비 견인 중 위험담보 요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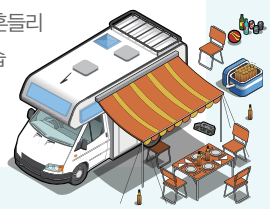
TIP

Breaking News! 화물차, 연내 캠핑카 개조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연 '부산지역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화물차의 캠핑카 개조 규제에 대한 완화 건의를 받고 이를 수용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는 캠핑카는 승합차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화물차도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 자동차 관리 법령을 개정, 화물차 등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종제한을 완화하고 캠핑카 유형별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캠핑카를 200% 즐기는 팁 1, 2, 3

✚ **물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_**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씻고 닦는 물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캠핑카도 생활공간이니 물이 부족하지 않게 챙겨야 합니다.

✚ **높은 차체, 잊으면 안돼요_**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나 트럭보다도 높이가 높습니다. 평소 몰던 차처럼 여기다가 차 지붕이 나뭇가지나 벽에 부딪혀 망가질 수 있습니다.

✚ **물건 정리는 필수_** 차 안에는 음식부터 각종 취사도구, 생활용품이 가득합니다. 운전으로 흔들리다가 자칫 사고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용품은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